

외로운 광야를 하나님의 동상으로

[나누는 몇 마디 (5)]

제임스 김 나눔

아기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고통 ...

사랑하는 아기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길 기도하였습니다(치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린 응답이 없었을 때
저는 고통 중에 있는 아기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 그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길 기도하였습니다
(죽음 -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버렸다.
언제간 쓸 것이라고 생각해서 모아두었던 것만,
아낌들 뭐하랴!

아내 같았으면 ...

조금전 막둥이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등이 좀 간지럽기에 등좀 긁어달라고 했더니
'징그럽다'고 하면서 마지못해 살며지
(간지럽게) 긁어줬음.
아내 같았으면 확실히 긁어 줬을텐데 ...

아내 사랑

"우리가 배우자의 시각을 고치려고 서두를 때는 상대의 고통에 동감하기보다 오히려 옳고 그름에 더 관심이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아내와 대화할 때 여유를 갖고 듣자(서두르게 해결 제시를 하지 말자).

아내의 감정에 먼저 공감하자(아내의 입장에 듣고 아내의 고통에 동감하자).

그런 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성경 말씀을 나누자(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자).

아내

아내(helper)는

큰 도움(help)이 되지만

또한

큰 해(harm)와 깊은 상처(hurt)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아내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내가 아내와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기보다

아내가 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고마워 해야 겠다.

아내와 어머니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하나요?

만일 당신의 아내가 당신에게 '나와 당신의 어머니,
둘 중에 한 사람을 택하라'고 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어머니를 택하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아는 형제님은 아내로부터 그 질문을 받고 어머니를 택하므로
결국 부부가 이혼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먼저 생각되는 점은 남편으로서 내 아내와 내 어머니/아버지와 의 갈등 속에서
중가운데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로서 내 남편과 내 어머니/아버지와 의 갈등 속에서도 마찬가지구요).
또 한가지 생각되는 점은
성경에서는 내 배우자에게 저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부부가 주님 안에서 한몸이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적용할 때
부부 관계가 우선순위 되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가 부모님이나 우리 자녀들은 제 3 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내의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했다가는? ㅎㅎ

웃기다. ㅎㅎ
오늘 선배 목사님 세 분을 만나서 내가 그 분들에게 어제 제 아내가 저에게
'당신,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라'고 말했을 때
(아내가 나에게 그리 말한 이유의 배경은 나누기가 좀 곤란함 ㅋㅋ)
제가 아무 말 안하고, 하고 싶은 말 참았다고 말씀드리니까
세 분다 저에게 '잘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 ㅎㅎㅎ
세 분다 경험이 나보다 훨씬 풍부하신 것 같아 보였다 ㅋㅋㅋ
만일 아내가 하고 싶은 말 하라고 했다고
우리 남편들이 그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아내하게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말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ㅎㅎㅎ

“아니오”라고 거절할 줄 아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오"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하는데,
아무리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절해야 할 때는 거절해야 하는데,
"아니오"라고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말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 결과 나는 먼저 하나님께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까지도 죄를 범하도록 방관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의 말보다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싶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할 때에
"아니오"라고 지혜롭게 그러면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내가 되고 싶다.

아들 딜런과 대화한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겸손한 예배자로 세움 받아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
봉사와 섬김과 전도, 선교 및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한다.

[사랑하는 아들 딜런과 함께 차 안에서 대화를 한 후]

아름다운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사명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인도 나가랜드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평생 중국에서 살면서 선교하겠다고 헌신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삶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순간적인 것들과
심지어 자신의 짧은 인생을 버리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용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자와
그 진심어린 용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는
참 아름답습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사랑과 화목과 자유와 평강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매들 ...

겸손한 여인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위로 받기 보다

위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소명)에 이끌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아름답습니다.

"아버지"

오늘 양로병원에 계신 교회 권사님을 찾아 보였습니다.

함께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나무 이야기도 하고 푸른 하늘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러시다가 권사님께서 권사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딸도 권사님처럼 연세가 많아 양로병원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하겠지 ...'

아직도 멀었나 보다.

끌끄러운 일을 보면 피하고 싶다.
워기고 싶지 않아서이다.
그리고 워겨보았자 그 일을 걱정하고 벌리는 사람(들)과
섞이는 자체가 싫다.
누군가 그 끌끄러운 일을 알아서 하겠지란 생각이다.
나 자신이 비겁한 침묵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어찌하나.
나는 매끄러운 일을 좋은 것을,
다툼이 싫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것을.
아직도 멀었나 보다.

악한 교회 지도자들?

죄는 자기가 범해놓고서
그 죄가 들춰지니까
그 죄를 덮으려고
죄 없는 피해자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악한 사람들,
그런 악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이 현실 ...
ㅠㅠ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어쩌면 그 지체가 "악해서" 그렇게 행했다기 보다
그 지체가 "약해서" 그리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해서'라는 말보다 '약해서' 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안하면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오늘 대학교 후배의 어머니의 장례식에 갔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유가족 분들은 관 옆에 서 계시고
조문객들이 줄을 서서 고인의 관쪽으로 걸어가면서 유가족 식구 분들께 위로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대학 후배의 대학 룸메이트였던 자매와 함께 줄을 서서
유가족 식구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
어머님을 떠난 보낸 그 후배는 많이 울고 있었습니다. ㅠ
저에게 울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하는 후배에게
저는 힘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저 악수하였습니다.
나중에 식당에서 그 후배의 대학 룸메이트들과 식사하면서
그 후배와 대화하면서 알게된 것은
그래도 그 자매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중환자실에서 누워계신 어머니께 마음의 고백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 얘길 듣고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친구에게 잘했다고 격려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점은
사랑하는 분을 떠나보내기 전에 마음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하면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도 ...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 갈수록
양심은 더욱더 깨끗해지므로
양심에 거리는 언행을 삼가할 수 밖에 ...

알면서도 못하고 있으니 ...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하는데
습관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

비판하지 말고 허물을 덮어 줘야 하는데
습관적으로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

남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야 하는데
습관적으로 입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 ...

알아야 안심하는 성격의 사람?

알아야 안심하는 성격의 사람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일이 터지면
놀라며 불안해 합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그 상황이
자신의 컨트롤 밖에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암이란 하나님의 초청장?

저는 "암"(cancer)이란 '하나님의 초청장(God's invitation)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암은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초청장이요(시편 143:8)
또한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구원의 사랑을 좀 더 깊이, 넓게, 많이, 높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라 생각합니다(63:3; 엡 3:19).

약속들을 ...

약속들을 잘 지키고 싶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싶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통해 입는 상처?

자라나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입은 상처가
아직 온전히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
결혼 후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를 통해
또는 장모님이나 장인을 통해
그 상처가 다시 생각날 뿐 아니라
그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가 더해 질 수가 있습니다.

양심 마비 경계

우리는 우리 양심이 마비되어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양심을 팔지 않는 친구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도,
양심을 팔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친구는 양심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내"가 더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는데 ... ㅠ

만일 우리 목사들이
구속사적 해석(Redemptive-historical interpretation)과
그리스도 중심된 설교(Christocentric preaching)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정의 부부 관계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Christ-like life)이 결핍되어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영광을 받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목사님이 더 낫습니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보다
설교한 대로 잘 사는 목사님이 더 낫습니다.

어느 설교가 더 잘 들리고 있나요?

나의 죄를 책망하는 설교보다
나의 죄를 덮어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설교가
나의 귀에 더 잘들리고 있다는 것은 ...?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하나님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어떠한 공동체에 속해 있나요?

맞혀가는 공동체보다

맞는 공동체가 좋는데 ...

어떠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일까?

나를 위한다는 느낌보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느낌을 주는 책망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됩니다.

어떻게 이혼의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요?

꼭꼭 참고 참다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이혼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에
어떻게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요?

어리석도다.

나도 마찬가지인데,
나도 별다른 바가 없는데,
왜 아닌 것처럼
나는 자꾸만 덩달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어리석도다.

어머니의 과잉 사랑의 쇠사슬?

과잉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다는 명목아래
자녀에게 큰 부담을 주는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대와 요구는
그 자녀로 하여금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장애를 가지고와 어머니의 과잉 사랑의 쇠사슬에 매여
평생 고생하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이시기에 ...

형제/자매는 용서를 못해도
어머니는 용서를 하십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방법도 ...

어쩌면 사랑하는 방법은 상대방을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는 것일 수도...
그를 비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배려하지 않은 내 입장에서의 충고도
(아무리 사랑으로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할지라도) 삼가해야 하는지도...

어쩌면 우리가 잘 못해서가 아니라 ...

어쩌면 우리가 잘 못해서가 아니라 잘 안맞아서 그럴 수도 ...?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고자 우리를 궁핍한 "광야"에서 오랫동안 훈련시키시고
들취지는 죄의 결과로도 우리를 고통 중에 단련시키시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유진 피터슨의 "물통새에 불이 붙듯"을 읽으면서)

억울함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함(분개)(Resentment)은 위험하다.
특히 밖으로 표출되지 않고 있는 분개는 참으로 위험하다.
자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앓좋은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나 자신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문제가 우리 자신임을 계속 부인하면서
우리의 억울함만 호소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억제해 주시는 은혜?

우리가 은혜로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최악된 옛 본능을 억제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억지로 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답시고
그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어서(벧후 3:16)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을 볼 때
성경을 보는 틀(frame)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틀은 바른 교훈(sound doctrine)으로서
제 개인적으로는 개혁신학의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틀안에 박혀 있는 것도 위험할 수 있지만(하나님의 계시에 열려있지 않는 상태)
그 틀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괴로울까

나중에 후회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
알면서도 안되는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

영영 을 필요가 있습니다.

꿈 속에서라도 그리운 사랑하는 고인을 뵈고
좀 영영 ,영영 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힘든 세상에 살아가면서 적어도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한시간 만이라도
위로의 설교, 긍정적인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어느 한 성도님의 솔직한 고백,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안전한 설교"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도님은 그 "안전한 설교"(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설교)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안전한 설교는 "듣는 내내 적당히 고개를 끄덕일 수는 있지만
교회 건물을 나서는 순간 내 머리에서 사라지는 설교,
내 속에서 그 어떤 고뇌와 갈등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설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영혼도 결코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설교보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임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설교,
목사님은 이러한 "위험한 설교"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양분되어 분노가 극에 달해 그를 죽이려고 하던가
아니면 그의 말씀에 인생 전체가 변화되던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유있는 마음, 단순한 생각?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생각까지 복잡하면
마음이 조급해 질 수가 있고
생각에 혼란이 오기가 쉬운 듯 ...

여행에 관한 우리 부부의 차이

아내하고 저는 다른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행에 관한 것입니다.
아내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자라 나면서 장인 어르신이 식구를 데리고
여행을 종종 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저는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변명은 가난한 목사님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돈이 없어 여행을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 다른점 때문에
많이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합의점을 찾은게
아내가 여행 계획을 다 세우면
(물론 아내는 저에게 다 상의를 함)
저는 운전을 합니다 ㅋㅋ
아내의 입장에서는
제가 여행 계획을 다 세우고 등등 해서
자기를 데리고 가길 원할텐데 ...
언젠가는 그럴 날이 오겠죠? 하하

역경과 위기 가운데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 허락하시는 역경이나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첫번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이 간절히 이뤄지길 원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오직 말씀으로!

역시 오직 말씀으로 ...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자.

열매보다 뿌리로 인하여

나무의 풍성한 열매들로 인하여 만족하며 즐거워하기 보다
나무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열매보다 뿌리를

우리는 보이는 가정의 열매들과 나무와 줄기(외면)에 신경 쓰기 보다
보이지 않는 가정의 뿌리(내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영생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할 때

영생을 그저 내세의 영원한 생명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아니됩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란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곳은 요한복음입니다.

헬라어로 "영생"은 "조에(life) 아이오니오스(eternal)"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조에"(생명)라는 말과 "아이오니오스" (영원한)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즉, "영생"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첫째로, 영생이란 시간적으로 "끝없이 지속되는 생명"을 의미하고,

(2) 둘째로 질적으로 "인간의 삶과는 다른 신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란 말에는 시간적으로 영원한 삶이란 의미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신적인 삶이란 의미를 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영생"의 의미는 공관복음처럼 "내세에서 누릴 영원한 축복"도 의미하지만

그보다 "현재"에 누리는 축복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며,

그 축복을 주님 안에서 현실 속에서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에 우리가 누리는 영생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하여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17:3) 나누는 가운데 주시는 내세의 축복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재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분적으로 누리는 영생의 축복은

바로 성령님의 성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현재 부분적으로 누리는 영생의 축복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부분적으로나마 맛보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의 축복은 평안입니다.

비록 평화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분적으로나마 영생의 축복인 하나님의 평강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설상 그 헤어짐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잠시 헤어지는 것이기에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 할 것을 소망합니다.

영적 그레질

한옥을 지을때에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바로 주추를 놓는 일입니다.
여기서 주추란 기둥 밑에 괴는 돌을 의미합니다.
그 주추를 다 놓으면 그 때서야 기둥을 세우는데 바로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기둥과 기둥을 잡아는 주는 일(창방)을 하며 집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주추 위에 기둥을 세울 때에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레질(그랭이 공법)입니다.
여기서 그레질이란 주춧돌은 보통 자연석을 쓰다 보니까 아무리 넓고 평평한 돌을 골랐다 해도 기둥을 바로 세우기가 어렵기에 주추 위에 기둥을 세우려면 주춧돌의 면과 기둥의 면이 잘 맞아 떨어지도록 하는 선 작업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레질입니다. 그레질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춧돌 위에 세워지는 기둥의 면을 주춧돌에 맞게 깎고 갈아 내는 것입니다.
기초가 되는 주춧돌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위에 세워지는 기둥의 면을 깎고 다듬어 주추에 맞추는 것입니다. 기준은 기둥이 아니라 항상 주춧돌입니다.
그리고 이 그레질을 잘 하면 잘 할 수록 집은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세워집니다(인터넷).
저는 영적 그레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 적 그레질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반석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마 7:24). 다시 말하면, 영적 그레질이란 우리가 그저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21 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치 집을 지음에 있어서 기준이 기둥이 아니라 주초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기준은 바로 주님이요 주님의 뜻입니다. 그 말은 마치 주초가 기둥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둥이 주초에 맞춰야 하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우리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근육 발달

내가 약 14년 동안 일주일에 3번씩 가는 YMCA가
얼마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새로운 운동 기구를 갖다 놓았다.
나는 그 새 운동 기구를 사용하다보니 여태껏 근육 발달이 안되었던 부분이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은 근육이 골고루 균형있게 발달되기 위해서 잠시 겪어야 할 통증이란 것이다.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골고루 주시는 말씀을 편식하지 말고 다 잘 먹고 지켜 행하므로
내 영적 근육을 균형있게 성장시켜야 하겠다.
듣기 좋은 말씀이든 듣기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그때 그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니 겸손히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로 잘 받아 먹자.
비록 그 과정에는 성장 통증(고통)이 있다할지라도 ...

영적 매력을 느낍니다.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
그 말씀을 알고 배우고 싶어 열심을 내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몸부림 치는 모습,
신실하게 일관된 모습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모습,
그 모습을 사랑하는 지체들에게서 볼 때
저는 영적 매력을 느낍니다.

영적 산소 호흡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산소 호흡기를 떼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 우월감과 열등감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영적 우월감을 갖기가 쉽고
타인의 공로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열등감을 갖기가 쉽습니다.

영적 차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영적 차이는 위기를 가져옵니다.
믿는자와 믿지 않는자와의 부부 관계보다
왠지 둘 다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앙관이 다를 때 오는
부부 갈등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더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영적 차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성격 차이보다 영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면 ...?

교회에 어르신들을 보면
수술 후에든지, 연세가 많으셔서든지,
어느 순간부터 입맛이 없으셔서
식사를 잘 못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살이 빠지시고 몸이 더 허약해 지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전 처럼 성경책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습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면 성경의 맛을 잃습니다.

영혼을 키우는 일이 중요한데 ...

교회의 리더쉽이
영혼을 키우는 일을 뒷전에 놓고
비즈니스와 소비자 중심 모델을 따르면서
교회의 수적 및 재정적 자립을 보장해 주는 방법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유진 피커슨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을 읽으면서)

예민, 고민, 민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에
내가 예민할 때 마음에 고민이 생기지만
그 고민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민감해지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죄가 들춰졌을 때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 낙심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기억하고)
믿음으로 겸손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3 일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낙심한 내 영혼이 소성케 되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Iain M. Duguid 의 "Jesus in the Old Testament"을 읽으면서
오늘 아침에 네이버 블로그의 댓글을 통해 어느 지체로부터 받은 교훈을 생각하면서)

“예수”라는 우상?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예수"는
결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측불허의 상황에서

예측불허의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

오늘 배운 교훈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정을 절제하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흔들림이 없이
해 나아가야겠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선물 주님 안에서 즐기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주님 안에서 즐기자.

특히 "시편 말씀 묵상집"을 수정하는 일,

어제 밤까지 67 pages 까지 했는데 오늘 밤까지 시간이 되는데로 열심히 해서

711 pages 끝까지 다는 못한다 할찌라도 하는데 까지 즐기면서 하자.

될 수 있는대로 빨리해서 마지막 수정본을 다시 이 메일로 원했던 지체들에게 보내자!

오늘 하루

오늘 하루가 당연히 있는 하루도 아니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겸손히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뒤돌아 볼 때 ...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하루의 첫시간인 새벽기도회 때와 조금 전에 하루를 마치면서 읽은 성경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시고 감사케 하셨으며 또한 소생케 하셨습니다.

(동역자들과의 만남과 중환자실에서의 만남과 양로원과 식당에서의 만남을 통하여)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때문에"란 말보다 "덕분에"란 말을 사용하십시오.

그 이유는 "때문에"란 말은 불만족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표출하지만

"덕분에"란 말은 만족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오늘의 만남이 ...

오늘의 만남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기에 ...

오래된 친구들

오래된 친구들이 좋다.

3-40 년이 되어가는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 식사하면서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많이 웃었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었다기 보다

지난 날의 추억들을 얘기하면서

함께 웃었다.

오직 주님만이

짧은 인생,
긴 고통,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
주님만 바라보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뤄지는 선교여행 되길 ...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뤄지는 선교여행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그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로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입으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오해받는 목사, 이해하는 주님의 종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목사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D. A. 카슨,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를 읽으면서)

오해할까봐 걱정 안합니다.

상대방이 오해할까봐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 앞에선 다 이해해 줄줄 믿기에
조심성 없이 내 모습, 내 진심 그대로 자연스럽게 말하는게 좋습니다.

오히려 더 뚜렷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뚜렷하게 보게되는 것 같습니다.

온갖 허상을 깨트려야

우리에게는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옛 본능대로 그 현실을 부인하고
스스로를 기만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쳐 놓은 온갖 허상을 깨트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허상들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을 읽으면서)

온전한 기쁨으로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그 자체를 온전한 기쁨(pure joy)으로 즐길(enjoy)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르게 초점을 맞추기

위험 부담이 큰
위기 상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위에 계신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올바르고 일관성있는 판단력

나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들에게
일관성있는 판단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실제로 나는 그들에게 충분히 혼동을 줄만한
언행을 하였다.
나는 그것을 어제 주일 가정 모임 및 예배 때
솔직하게 고백을 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한 남편/아버지와 살면서도
아내나 세 자녀들은 각자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올바른 판단 속에서 행동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었보인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감사.

옳바른 일이기 때문에

옳바른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자꾸만 일이 안될 때
타협하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옳바른 일은 일이 잘되든 안되든을 떠나서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인가요? 다른게 있나요?

성경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혼한 형제가
재혼하는데 주례를 부탁 받은 목사가
그 결혼을 주례한다는 것,
옳은 것인가요?

옳지 않은 결혼을 주례하는 것과
동성 연예자들의 결혼을 주례하는 것과
다른게 있나요?

왜 그녀는 불안정한 것일까?

왜 그녀는 불안정한 것일까?

왜 그리도 자신감이 없는 것일까?

혹시 그녀는 자라나면서

부모님의 지나친 사랑으로 인한

지나친 기대감에 억눌려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러한 가운데서 그녀는 아무리 자기 부모님을 만족시켜 드리고자

그리도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고 믿기 때문은 아닐까?

그 노력 중에 부모님께 순종하여 원하시는 대학 전공을 택하여 공부 등을 했지만

너무 자신의 적성에 맞지도 않아 너무나 싫었고 해서 자신감이 너무 없는 것은 아닐까?

자기 부모님의 기대에 항상 못미치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실망하고 또 실망하여서 불안정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왜 나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용할 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란 책을 읽으면서)

왜 만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슬픔과 아픔과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슬픔과 아픔과 위기를 돌이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배우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당신이 그들에게 입은 상처(hurts)와
그 상처들을 준 그 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깊은, 큰) 상처를 입혔 때
당신의 마음의 밭에는 쓰라림(bitterness)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쓰라림의 씨앗이 좀 싹이 날 때에
그를 용서하므로 뿌리채 뽑지않고
오히려 그가 당신에게 입힌 상처만 생각하고 또 생각하므로 재배했습니다.
이렇게 당신은 상처에만 오래바라보고 있으므로
당신의 마음에 쓰라림이 생긴 것입니다.
쓰라림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용서란 당신을 아프게하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준 사람과 그 상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사 영광을 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좋은 예가 요셉).

왜 불순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주시지만
우리는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시험에 드는 것일까요?

일꾼이 적은 작은 교회에서는
'봉사하세요'하면(봉사할 사람이 없기에)
시험에 들 수가 있는 반면에

일꾼이 많은 큰 교회에서는
'그만 봉사하세요'하면(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험에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시험에 드는 것일까요?

왜 죄를 미워해야 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죄를 미워하고 미워해야 하는데 ...

왜 편법을 ...?

힘든 상황에 지배를 받는 머리는
편법을 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올바르게 행합니다.

왜 피해의식?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많기에
피해의식이 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의식이 강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선 매우 방어적이면서
상대방에 대해선 공격적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깊은 상처들을 다시금 꼬집어 내시는 것일까요?

중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이민와서 한 1-2 년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 집 앞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오른쪽 무릎을 다쳤었습니다.

그 때 저는 별일 아닌 줄 알고 그냥 다친 무릎을 방치해 놓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하루, 하루 지나갈 수록 그 다친 무릎이 점점 더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아팠었냐면 학교 친구 둘이 제 양쪽에서 부축을 해줘야 할 정도로

아파서 제대로 걸지를 못했었습니다.

그 때 제 기억으로는 그 오른쪽 무릎이 굽기 시작해서 노란 것이 보였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미련해서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아픈 것을 참을 수 없어서 한인 타운에 있는 한국 병원에 갔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날 정도입니다 하하).

그 때 의사 선생님이 저의 오른쪽 무릎을 보시더니 빨리 찢어서 고름을 다 빼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마취도 하지 않으시고 가위로 제 무릎의 피부를 도려내셨습니다

(그 때 저는 너무 아파서 의사 선생님에게 욕을 했던 것으로 기억함 ㅠ).

그러시고는 두 손으로 제 무릎을 양쪽으로 누르셔서 고름을 계속해서 짜내셨는데

그 때 얼마나 아팠는지 ... 휴... 지금도 그 때 그 생각을 하니 좀 그러네요. ㅎ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속에 숨겨져 있었던 너무나도 아픈 상처들을 어떠한 계기로
다시금 꼬집어 내셔서 그 상처들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사 싸매어 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록 그 상처들이 다시 표면화되었을 때에는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지만

마치 살을 도려내는 과정이 없이는 제 무릎에서 고름을 없애고 온전히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한 괴롭고 힘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상처들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호세아 6 장 1 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웬만해서는 문 닫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중국집,
몇번이고 월요일에 갔다가 문 닫혀 있길래
나는 나 같은 목사처럼 중국집 주인 아저씨도 월요일 날 쉬는가 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월요일 음식을 시켜 먹으려고 무심코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는게 아닌가.
그래서 나는 전화받은 아줌마에게 월요일도 문 여냐고 물었더니 문을 연다는고 말하는게 아닌가.
나는 음식을 주문한 후 그 아줌마에게 10 분에 오라고 해서 음식을 가지고 갔다.
아직도 믿겨지지 않아서인지 나는 음식 값을 계산하면서
일하는 다른 중국집 아저씨에게 월요일 날 중국집 여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 '중국집은 웬만해서는 문 안닫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내 머리에 맴돌고 있다.

'교회도 웬만해서는 문 닫지 말아야 하는데 ...'

외로운 광야를 하나님의 동산으로 ...

광야와 같은 곳에서
군중 속에 외로움과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함과
나의 무기력함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광야를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외로움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인한 힘듦보다
속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조차도 없는
외로움이 더 힘들고 더 괴롭습니다.

(어느 형제와 마음 문을 열고 대화한 후 적은 글임)

외로움과 고난

외로움을 통해서라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워야 합니다.

요셉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에게 미움을 받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욕심

우리 마음에 욕심(탐심)이 있으면 결코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 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지 못할 죄가 없으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용서하기를 거부?

만일 우리가 지금 다른 이들을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사랑의 눈물은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과거의 만남의 추억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던 마음이 몽글한 기억을 되살리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사랑을 받은
자와 함께 같이 우는 사랑을 베푸자의 눈물은 소중합니다.

우둔하길 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에는 우둔하길 원하며,
주님의 방법에는 민감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상대방에게 전적인 신뢰를 얻을 정도로
주님의 일을 사랑으로 지혜롭게 하신다.

우리 남편들은 ...

우리 남편들은
아내가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도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교회가 주님을 신뢰해야 하듯이
남편에게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 만남을 통하여

마치 다윗으로 하여금 요나단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히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빚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으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참으로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해야 한다고 외치지만 몇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목회자는 힘들어 할 뿐만 아니라 낙심하고 심지어 절망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낙심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바라보는 목회자가 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절망까지 합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가 변질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서로로 인하여 실망하고 절망까지 합니다.

그 이유는 변하지 않고 변질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하기 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힘들어하고 실망하며 낙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변화를 꾸준히(부지런히) 추구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변화시키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변화시키고 계심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길 기원합니다(롬 12:2).

우리 문제의 원인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에 우리 마음에는 불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불만족이 있기에 우리는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문제의 원인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기에 우리는 불순종, 불만족,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

우리 부모들은 죽기 전에 우리 자녀들의 심비에 사랑의 추억들을 많이 적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죽어도 우리 자녀들은 그들의 심비에 적힌 그 사랑의 추억들로 인하여 사랑하며 살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부모들은 죽을 때까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죽어도 우리 자녀들은 그들의 마음에 담긴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좇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부모의 책임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 주고자 하고 있지만

그 자녀의 신앙을 위하여

무엇을 물려주지 말고

우리 세대에 그것들을 제거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우리 사람들의 미련함이 이정도인가요?

참 답답합니다.

왜 이리 고집스러우십니까? 왜 이리 충고를 받지 않으십니까?

뻔히 '구덩이'에 빠지는 길인데 왜 그 길을 고집피고 가십니까?

구덩이에 빠져 보셔야 당신이 선택하신 길이 잘 못된 길이었는지 그 때서야 깨달으시겠습니까?

이미 한번 비슷한 구덩이에 빠져 보시고도 아직도 깨달지 못하시겠습니까?

왜 또 이리 행하십니까? 우리 사람들의 미련함이 이정도인가요?

우리 서로 ...

우리 서로 한 발 자국 뒤로 물러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살펴 보십시오.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각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시길 ...

우리 서로 한 발 자국 서로에게 다가가십시오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고,
먼저 진심으로 용서하고,
먼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꺼예요.

우리 인생의 퍼즐들을 맞춰가시는 하나님

지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든
우리 인생의 퍼즐들을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며,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퍼즐들을 이미 맞춰놓으시고 앞으로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퍼즐들을 맞춰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할 때 우리 마음에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

우리 하나님은
슬픔 중에 있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동일하신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오히려 우리의 고난이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응답?

우리 기도의 응답이
우리 기대대로 현실화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도 응답의 현실화는
우리가 기도한 내용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드리기 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난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난관을 만났을 때 우리의 눈이 주님께 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의 영적 저항력이 없어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난관 속에서 영적으로 더 단련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지
아니면 영적으로 취약해져서 하나님께 범죄하던지...

우리가 당면한 어렵고 힘든 상황을 ...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 마음을 깊이 들여다 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상황을 연단의 기회로도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요동함이 없이 견고해야 합니다(시편 26:1-2).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

우리는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그 상황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있다는 증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는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 영광"입니다. 卍

우리는 겸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 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알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할 때 결코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할 수 밖에 없습니다

(John Frame 교수님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영안이 열리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으며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 같다.

우리는 빛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빛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탕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원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빛진자 사상이 결핍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 할 수록 우리는 빛진자 사상이 더욱더 뚜렷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 수록

우리의 죄가 더욱더 들춰질 것이요, 우리의 죄가 들춰지면 들춰질 수록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흘리신 보혈의 필요성을 더욱더 절실히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으면 받을 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수록 우리의 빛진자 사상은 더욱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찬송가 410 장, 1 절)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기에 우리의 빛진자 사상이 부족하고,

이 빛진자 사상이 부족하므로 우리는 ‘그래도 내가 좀 쓸모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 없고 쓸모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전적인 은혜로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빛을 얼마나 탕감해 주셨는지를 더욱더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빛진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격한 감정을 표출하거나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라도
우리는 이성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달라스 윌라드, "마음의 혁신"]

우리는 감정(feeling)보다 사실(fact),
즉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the Word-driven)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삶이란
한 마디로 믿음의 삶(life of faith)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군사)들로서 영적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이 말씀을 잘 다루는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사단과 영적 싸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

우리는
세속화 되지 말고
성경 인격화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불성실함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할지라도
내게는 평생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영원히 감사할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조건은 구원이다.
그 조건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감사하기로 결심한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기로
다시금 헌신한다.

우리의 교만함과 위선만 더욱더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 卍

만일 우리 목사들이

구속사적 성경 해석(Redemptive-historical interpretation)과

그리스도 중심된 설교(Christo-centric preaching)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정의 부부 관계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Christ-like life)이 결핍되어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영광을 받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결핍된

구속사적 성경 해석과

그리스도 중심된 설교는

우리 목사들의 교만함과 위선만

더욱더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 卍

우리의 도움이 필요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반복되는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해 나아가십니다.

[Iain M. Duguid, "Living in the Gap between Promise and Reality"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빛으시는 하나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케 하시고자
우리의 마음을 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

우리의 미련함?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
내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나의 미련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

우리의 연약함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우상?

물질(wealth)과
높아지고 하는 욕망(desire for status)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fear of man) 및
자기-의(self-righteousness)는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C. D. "Jimmy" Agan III 의 "The Imitation of Christ in the Gospel of Luke"를 읽으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아닐 때에도 ...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진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우선순위에 두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준비,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확실하게 준비하십니다.

우상화한 결과?

만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나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나 그것을
우상화하여 살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일주의와 하나님 중심된 삶을
어떻게 사는지 그 skills 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것이다.

(Edward T. Welch, "ADDICTIONS – A Banquet in the Grave"를 읽으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시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여 받은 축복을 최우선시하게 되면
우리는 그 축복을 우상화 할 위험이 많습니다.

우월감을 가진 마음

우월감을 가진 마음으로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를
체휼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 하다가 4 거리 신호등에서 든 생각 및 적용

오늘 운전하다가 4 거리 신호등에서 빨간 불이래서 멈춰서 있었다.
그런데 녹색 불에 양쪽 반대 방향으로 서로 지나가는 두 차 중
한 차는 좌회전 신호를 주고 좌회전을 하는데
직진하는 차가 빵!하고 크랙션을 누르면서
좌회전 하는 차의 운전사를 찌러 보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직진하는 차가 화날 만도 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앞으로 지나가는 그 직진 차를 자세히 보니까 좌회전 신호가 켜 있는게 아닌가...
아... 그래서 아마도 좌회전했던 차가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좌회전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빵!하고 크랙션을 누른 차의 운전사는 자기 차에 좌회전 신호가 켜 있는 것도 모르고
상대 방 차가 그 신호를 보고 먼저 좌회전을 한 것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 생각을 우리 인간 관계에 적용해 보았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가끔 또는 종종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것을 보면
어쩌면 상대방의 문제이기 보다 우리 자신이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직진하던 차가 자기 차의 좌회전 신호가 켜 있는 것을 몰랐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우리가
상대방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직진'하므로 말미암아
상대방과 마찰이 일어나던지 또는 일어날 뻔하므로
기분이 상하고 상대방에게 화를 낼 때가 있는게 아닌가 생각되었다.
먼저 나 자신을 뒤돌아 보는 습관을 갖아야 겠다.

울고 웃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회 때에는
마음이 몽클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점심에는 나를 사랑해주시는 동문 목사님들을 만나서 실컷 웃었습니다.

울을 필요가 있습니다.

울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껏 엉엉 코눈물 흘리면서

울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응어리를 다 쏟아내어 버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울을 필요가 있습니다.

웃을 필요가 있습니다!

웃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껏 신나게 웃는 순간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한방에 날려보내는 큰 웃음이 우리에게겐 필요합니다.

원하는 것, 필요한 것?

기독교 동아리의 목적이 미션(mission)인데

그 동아리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교제(fellowship)를 더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 지도부 지체들이 쉽지 않지만

그 동아리의 목적인 미션에 초점을 맞추고자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말에 제가 졸업한 대학에 한 40명 정도가

2박 3일인가 가서 캠프스에서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자는 것은 캠프스 주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슬링핑배그를 깔고 잔다고 함).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체가 목적에 이끌림을 받기가 힘들 정도로 지체들이 다른 것을 더 원할 때에

지도자로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들이 필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을 주시므로(고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믿음, 순종)을 주시고자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들을 학교 기숙사에 데려다 주면서 아들을 통해 배우면서)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구하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기 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길 원합니다.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들어야 ...

내가 들길 원하는 설교를 듣기보다

내가 들을 필요가 있는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크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크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위기 의식과 변화

위기 의식을 느낀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기 가운데서 필요한 변화를 주님께서 일으키셔야 한다는 생각보다
내(우리)가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

위기는 변화의 기회임을 잊지 말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썩어가고 있는 살을 도려낼 수 있는 기회,
변질되어가고 있는 것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위기는 기회이다.

위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우리는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을 들어야 한다.

위기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우리는 상처입은 치유자로 더 큰 위기에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 나아가심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위기를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위기는 기회이다?

우리가 보기에 위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기를 무슨 기회로 삼아야 할까요?

위로의 사역

다가가기

경청하기

기도하기

말씀 전하기

위험 혹은 가능성?

믿음의 눈으로 가능성을 보는 것이
불신의 눈으로 위험을 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위험한 분열

현실과 이상의 점진적으로 커지는 분열은
정신의 분열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10 여 년에 걸쳐 불안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거식증, 실어증, 불면증, 기억상실증, 몽유병,
다중인격 증후군, 그리고 정신분열증(조현병)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여러 정신질환을 앓았던 백현민
목사님의 "정신질환 치유와 예수 그리스도"란 책을 읽으면서)

위험한 열정

열정(zeal)은 귀하다.
그러나 잘못된 확신에 근거한 빼돌어진 열정은 참 위험하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빼돌어진 열정으로 섬기는 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된
자기 뜻을 이루고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인데...

위험한 확신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추측이나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확신은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성품의 변화가 없이
열심이 교회를 섬기는 자를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섬김의 자세가 겸손하지 못한 사람을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세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유익되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우리 자신에게 유익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되게 해야 합니다.

유익한 고민이 되어 할텐데 ...

나 자신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고민할 때에
우리의 초점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되어 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케 하는
유익한 고민이 되어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소식을 듣고 ...

목회자의 이성과
목자의 마음을 균형있게 ...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잠드셨다는 소식을 접한 후)

올법적인 신앙이 아닌가 ...?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전통을 중요시하는 것은
올법적인 신앙 (?) 이 아닌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

융통성이 없는 고지식함은 ...

융통성이 없는 고지식함은
아무리 순수하다 할찌라도
어쩌면 지혜롭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

은혜와 책임

'하나님의 은혜로'가
우리의 책임을 무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도를 믿는다면 ...

사랑하는 사람의 의도를 알고 믿는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문에서 불의까지?

의문하다 보면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다 보면 불신하게 됩니다.
그 불신은 불순종하게 만들고
결국에 가서는
불의를 행하게 만듭니다.

의심의 원인

내 마음에 의심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보이지 않는 미래 보다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내 삶의 현실을
내가 지금 더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심을 돌이켜 믿음에 견고히 서 있기 위해서는
나는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내 삶의 현실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진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의심이 아닌 의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 두 마디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내를 생각할 때,
자녀를 생각할 때,
가족을 생각할 때,
이 두 마디를 왜 하는지 조금 깨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땅에서 아니면 하늘에서?

만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주는 상급을 받아 누리기를 사모하며 또한 받아 즐기고 있다면, 하늘에서의 우리의 상급은 초라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 우리가 하늘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상 주심을 사모하며 또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받는 욕이나 비방이나 수모나 박해 등을 은혜와 영광으로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기보다 ...

이 세상에는 보기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여기 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너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
마음에 무거움과 괴로움과 슬픔이 없이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죄를 자백하고 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나 같은 연약한 죄인을 위해서 기도케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기적인 것보다 희생적인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믿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기적인 것 보다
희생적인 것이 낫습니다.

(Iain M. Duguid 의 " Esther & Ruth"란 책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이란 인물을 생각하면서)

이기적인 나

내 자신이 이렇게 이기적인 줄 몰랐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정도로 익숙해져 있는 줄 몰랐다.
새벽기도회 때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이 작은 깨달음 속에서 나는 특히 두 분이 많이 생각났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후 한 분에게는 이 메일로 용서를 구하였고
또 다른 한 분에게는 구두로 용서를 구하여 용서를 받았다.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는 나 자신과의 싸움...
충분히 낙심케 될 수 있겠지만 용서를 받았을 때 다시 내 영혼이 소성케 됨을 경험한다.

이러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크고자 하는 야망을 버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을 크게 하고자 나는 작아지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비우고 싶습니다.

상대방을 높이고자 나는 낮아지고 싶습니다.

이러한 거절 행위는 성경적입니다.

영적 공통성을 갖고 있지 않은 자가 함께 하자고 할 때에

결단성 있는 거절 행위는 성경적입니다.

(참고: 박윤선 박사님의 에스라 4 장 1-3 절 주석 해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루 하루를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난다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텐데 ...

이러한 교회가 싫은 이유는?

기업화 된 교회는 싫습니다 ...?

이러한 교회이면 좋겠습니다.

시대에 뒷떨어져서 인기가 없고, 작다 할지라도,
건고하고 일관성이 있는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이면 좋겠습니다.

("THE PATTERN OF SOUND DOCTRINE"이란 책을 읽으면서)

이러한 만남을 가지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중요시 하는 것이 다르다.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꼭 중요시 여겨야 한다고
강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이다.

이것을 함께 중요시 하는 소수의 지체들을 만나
주님 안에서 함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만남이 좋습니다.

웃음이 꽃피는 만남이 좋습니다.
옛 추억을 되살리면서 함께 크게 웃는
엔돌핀 도는 만남이 좋습니다. 하하

이러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성경에 완전히 몰입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 자신을 굴복시키길 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제 안에서 재창조해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먼저 성경을 소화시키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면화한 성경을 살면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을 읽으면서)

이러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목회를 힘들어 하는 목사가 되기 보다
나 자신과의 싸움을 제일 힘들어 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목사님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을 비성경적으로 해석하여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십시다.

쫓기는 삶에서 쫓는 삶이 되길 ...

이러한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무익한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소망보다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좋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자신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시편 123:1).
우리의 소망과 구원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런 친구가 좋습니다.

이런 친구가 좋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나누는 친구,
곁에 있으면 소외감을 느끼거나 무시당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겨지지 않는 친구,
나의 최선을 모습을 끌어내고 나를 채워 주는 친구 ...

(유진 피터슨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고 싶다.

가슴의 열정과
머리의 냉정 사이에
균형을 이루면서 살고 싶다.

이미 그 시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

저에게 시험 문제를 내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음을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시험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않는지를
아시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민 목회

이민 목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므로 인내하며 견뎌야 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전하며 정직해야 함 또한 배우고 있습니다.

새해 2013년에는 더욱더 내 뜻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더욱더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가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별이란 ...

사랑하는 가족 식구과의 이별은
더 사랑하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이상을 일상으로

주님, 저에게 성경적인 이상을 가지고
성경적인 일상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오늘 차 안에서 라디오에서 그 방송 프로그램 담당자와
손님인 한의사 분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든 생각/기도제목).

이상합니다.

자신의 궁핍함을 잘 보면서 다른 사람의 궁핍함을 잘 못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너무 잘 보고 있으면서 자신의 부족함은 잘 못보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항상 "예"만 해야 하는데(고후 1:19) 많은 때에 "아니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아니오"해야 할 때도 많은데
그 때에 우리는 "아니오"라 말하지 못하고 "예"하고 있습니다.
"예"해야 할 주님께는 "예" 하지 않고
오히려 "아니오"할 이웃에게 "예"하고 있으니 이상합니다.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하나님의 뜻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말씀, 뜻)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될 때가 참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명철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뜻)을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뜻)에 불순종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말씀, 뜻)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즉,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그 말씀(뜻)에 끝까지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이성적인 배우자는 ...

이성적인 배우자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성을 잃을 때가 있는 듯 하다?

이야기 나눔

성도의 교제에는 나눔이 있습니다.

그 나눔이란 바로 우리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의 이야기에는 주님이 누구이신가 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 가 포함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을 읽으면서)

이웃 사랑에 관하여 ...

이웃 사랑에 관하여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을 때
이런 저런 핑계대면서 미루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데 ...

이해 받는다는 것

이해를 받는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특히 마음을 이해해 줄 때 위안이 됩니다.

이해 오해

이해는 바라지 않지만
적어도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하지 않나요?

이해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주님의 뜻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될지라도 ...

현재의 상황을 생각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면
왜 내가 그리 어리석게 행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염려하지 않고
주권자 하나님께 다 맡기므로
과거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신 뜻이
내 삶 속에 이뤄지는 것을 목격할 것이다.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가 안되는 일들이 많은 세상이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볼 때에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된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밖에 없다.
하나님이 어느 누구보다 그 지체를 사랑하고
또한 그 지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일 잘 알고 계시기에 ...

이해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해를 기대하기 보다
오해 살 일을 하지 말아야 할텐데 ...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오해를 받기 보다 이해를 받고 싶지만
실상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이해와 동의는 별개일 수도

이해는 좀 되지만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와 인정?

이해는 하지만
꼭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의 틀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이해의 틀(frame of understanding)에

알아듣게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말이 들리지 않을 듯 ...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힘센(?) 한 사람이 힘이 없는(?) 또 다른 사람을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히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이해가 안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학부형이

한 형제, 자매인 동역자나, 교역자를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게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내 머리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므로
그 상태나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지 말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즐기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이해할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 보내고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랑하는 친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 Tobey 형제의 아버지를 만난 후)

익숙하지 않은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접했을 때 우리의 본능은 우리의 익숙한 관점으로 그 문제를 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본능조차도 좀 뛰어넘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관점으로
그 문제를 보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가 접한 문제의 해결점을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여 다가가므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익숙한 것

익숙한 것이 꼭 편안한 것이 아닐 수도 ...

익숙함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는 것도 익숙해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익숙함

익숙함이 귀함을

앗아가는 것 같습니다.

익숙해지면 안되는 건데

원래는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다른 사람이 해주니깐

이제 내가 뭐하러 그 일을 해야하냐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 ㅠ

인간관계를 포기한 세대에

어제 한국 뉴스를 보다가 생각해 만든 점이 있었다.

전에 들어 알고 있었던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와 "오포세대"(출산, 결혼, 연애를 포기한 삼포에 인간관계와 집을 추가로 포기한 세대), 그런데 어제 뉴스에는 "칠포세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에 내집마련과 인간관계를 추가한 오포세대에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세대)가 되었다고 한다.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세대를 맞이하였다니 ...

나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오포세대"에 "인간관계"를 포기하였다는 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도 들었다. 인터넷 사역을 하면서 이런 저런 생각이 드는 가운데 "인간관계"를 포기하면서 살 수 밖에 없는 한국 청년들의 상황과 삶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고 싶었다. 동시에 드는 생각은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세대에 그러면 그럴 수록 나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교제를 추가해야 겠다는 생각이다. 그 이유는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세대에 어쩌면 주님 안에서 참된 인간관계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간절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해보다 오해, 위로보다 상처를 받을 수 입을 확률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해서 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주님이 뜻하시는 바이고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미?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 되어 하는데 ...

인간적인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

인간적인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절망의 끝에서 절박감에 쫓길 때
마지막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오로지 예수님 뿐입니다.

(크로포드 로리츠의 "세 가지 만남"이란 글을 읽으면서)

인생의 난관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큰 난관을 통해

우리의 죄의 종노릇하던 삶을 청산하고

그 큰 난관에서 건짐을 받아

주님의 종의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을 읽으면서)

인색함

어머니의 사랑은 인색하지 않는데 ...

인정하고 사과하면 되는 것을

자신의 잘못을 사랑하는 식구에게
인정하고 자백하며 사과를 하면 되는데
왜 그리도 합리하면서
다른 식구를 원망하면서까지
자기 방어하기가 바쁜 것인지 원 ... ㅠㅠ

인정하기가 그리도 힘든 것일까?

진정으로 나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다면
나는 사람 앞에서도 뉘우치는 마음으로
내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을텐데 ... ㅠ

일관된 좋은 습관에 이것만 더 있다면?

일관된 습관(consistent habit)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으나
그 일관된 좋은 습관에
유연성(flexibility)까지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일의 마침?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또한 마치시는데
일의 시작이 창대할 때에는
내가 마치고 싶지 않을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이 창대해졌을 때
멈추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신 일을 멈추시려고 할 때
더 나은 창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계신지도 모르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잃어버려서라도 얻어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에야
고통 중에서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가장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잃어버림의 큰 가치

물질의 풍부함은
우리로 하여금 자금자족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물질을 다 잃어버려 궁핍해져서라도
우리가 주님 한분 만으로 자족하며 주님만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잃어버림을 가치있게 여겨야 합니다.

잊지 못하는 사랑, 기억나지 않는 사랑

받은 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사랑을 준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잊지 못하지만 ...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나에게 베푼 자는
자신이 그 사랑을 베푼 기억을 못한답니다. 하하